

명당에 식물 세우자 '100년 榮華' 3년만에 몰락

■ 함평의 전설-의령 남씨 흥망

예로부터 함평은 풍광이 빼어나면서도, 전답이 넓고 비옥하여 천지간에 더없이 살기 좋은 땅으로 인구에 회자되어 '함평천지(咸平天地)'라는 미칭(美稱)을 얻고 있다. 함평군은 선사시대 이후 여러 지명과 행정구역의 통폐합에 따른 변동이 있었지만, 1409년(태종9년)에 함평현과 모평현을 통합하면서 지어진 '함평'이라는 지명을 오늘날까지 쓰고 있다.

백두대간이 산진수회(山盡水廻)한 말락(末落)의 땅, 함평은 산수가 아름다운 만큼 명당이 많고 또 그에 따른 전설과 일화가 많은 곳이기도 하다. 그 가운데 대표적 사례로 손불면 산남리 기서(己西)마을에 자자유촌을 이루고 살았던 의령남씨(宜寧南氏) 집안의 번창과 몰락을 들 수가 있을 것이다.

늙은 걸인이 명당 알려줘 富 축적

의령이 본관인 남응련(南應連)이라는 사람이 임진왜란을 피해 1592년 강원도 횡성에서 함평의 용흥(龍興)마을로 이주하여 정착했다. 하지만 100여년의 세월이 흘렀는데도 4대 독자로 갓신(孤身)이 되어가는 가세는 가난과 고적(孤寂)을 면치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봄날 남씨 후손이 마을 입구의 연(蓮) 방죽에서 논을 갈고 있는데 허름한 거지 행색의 노인이 지나가다가 잠시 쉬고 있는 소의 귀에다가 대고 나지막하게 말했다.

"황소야! 평생 고달프다가 네 팔자나 내 팔자가 어찌 이리도 똑 같단 말이나? 너의 주인에게 한 번 물어 보거라. 나와 나를 할 동안만 배불리 먹여주고 쉬게 해 준다면 내가 너의 주인을 10년 동안 부자로 살게 해 줄 것이다. 1년 동안 호강을 시켜준다면 100년을 부자로 살게 해 줄 것이고, 10년동안 정성을 다해 보살펴 준다면 1000년 동안 부자로 살게 해주겠다고" 하는 것이었다. 이를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주인이 귀

전라도 풍수가 바뀌고 있다

■ 땅의 숨결을 따라 <33>



의령남씨(宜寧南氏)들이 비석을 세워 집안이 몰락한 연화도수형(蓮花倒水形)

가 솔깃하여 말하기를 "1000년을 부자로 살게 해 준다면 그 10년이 대수겠소! 우리 집안이 대대로 한미(寒微)하게 살아 대접할 것은 없지만 그래도 정성을 다할 테니 한 번 도와주소!" 하였다.

그 노인은 마을의 산세를 살피더니 이곳 용흥이 농토로는 좋으나 수구(水口)가 열려 있어서 부자가 되기 어려우니 우선 집을 옮겨라 하였다. 그래서 마을 건너편의 와우형(臥牛形)에 새로 집을 지어 이사를 하고 동네 이름을 전에 살았던 용흥마을의 서쪽이라는 뜻의 '기서(其西)'라고 하였다.

그런데 부자로 만들어 준다면 노인은 날이면 날마다 무위도식으로 부족한 식량을 축내면서도 미안한 기색은커녕 반찬과 반주(飯酒)타령을 일삼았고, 어느새 노인은 자연스럽게 온 식구들의 눈총을 받는 폭빈(暴貧)으로 비취지고 있었다. 이런 눈치조차 아랑곳하지 않던 노인이 어느 날 밥상머리 앞에서 남씨(南氏)에게 "오늘로 내가 이 땅에 몸을 위탁한지 1년이 되었으니 이제 그만 떠날 생각이오! 비록 눈치 밝아진 것이 그 고마움을 어찌 잊겠소. 약속한 부자를 만들어 드리기 위해 오늘 '연화도수(蓮花倒水)'의 명당에 선영을 모셔드리겠습니다"고 했다.

그 노인은 산역(山役)을 마친 다음에 "100년 후쯤에 혹시 남아도는 재물이 있거든 식물(石物)을 세워 선영치레를 좀 하라"는 글을 남기고는 흔적도 없이 떠나버렸다.

그리고 100여년의 세월이 흘렀다. 4대 독자로 한미(寒微)하게 이어지던 남씨 집안에 명당마람이 붙었던지 그 100년 사이에 80여 가구로 손(孫)이 불었고, 창고에는 재물이 넘치면서 신분 상승도 함께 이루어져 함평천지의 토호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렇게 집안이 불처럼 일어난 남씨들은 선조에 대한 효열(孝烈)을 온 세상에 자랑하기 위하여 이십여 기(基)의 선영이 모셔진 '연화도수'의 명당에 갖은 식물로 화려하게 치장을 하였다. 그 후 삼년도 안 되어 수많은 사람이 과질로 죽고, 집안은 뿔뿔히 흩어져 생사를 알 수가 없는 지경이 되었다고 한다. 풀이여 앞 어저듯 고개를 내밀고 꽃을 피우는 연꽃형국의 명당에 식물을 세웠으니, 이는 마치 연꽃을 바위로 눌러 물 속에서 썩게 하는 것과 같은 이치

후손들의 자기과시욕구 禍 초래

로서 삼가고 또 삼가 해야 할 일인데도 후손들의 사려깊지 못한 행동이 결국은 천년향화지지(千年香火지지)를 백년향화(百年香火)로 그치게 한 것은 물론이고, 한 집안이 망하는 멸문(滅門)의 화(禍)를 자초하게 된 것이다.

이제 기서(其西)는 몸기의 기서(己西)로 마을 이름도 바뀐 가운데 그 별책했던 의령 남씨 집안은 '연화도수형'의 명당에서 식물들을 철거해 땅 속에 묻고, 회한을 슬어내는 서너 호만 의롭게 남아 옛 영화를 되새기고 있다. 이처럼 생성과 소멸의 순리에 따라야 할 영역에 각종 식물과 묘비를 세워 화려하게 치장하는 것은 후손들의 자기과시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기적이요 허례일 뿐 효제가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특히 진혈입석(眞穴立石)은 소위 학이나 제비, 또는 봉황같은 날짐승의 돌형과는 상관없이 멸문지화(滅門之禍)의 지름길임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하는 것이 후손된 도리이다. /전중주·호남대 교수·한국풍수지리학회 학술연구위원

■ 전라도 역사이야기

-섭진강과 백호

조선중기 명문장가 임제 섭진강 모래섬서 號 유래 (백호)

섭진강은 유역면적(4,960km)과 분류의 길이(225km)로 보면 금강 다음으로 4번째다. 백두대간의 남단인 지리산에서 호남정맥의 동단인 백운산까지 1천리가 넘는 산줄기 안의 물이 모여 남해로 나간다. 전북 진안·임실·순창·남원, 전남 화순·장흥·보성·곡성·구례·순천·광양, 경남 하동 등 12개 고을에 걸쳐 284개 갈줄기가 합류해서 하동 갈도에 이른다.

섭진강도 영산강처럼 구간 별로 달리 불렀다. 세종실록에는 구례 앞 구간을 '잔수(澗水)'라고 칭했다. 상류부터 운암, 적성, 순자, 청계, 압록, 섭진이란 별도 강 이름이 쓰였다가 20세기 초 유역권을 통칭할 때 섭진강이 되었다.

광양군 다압면 섬거리에는 강의 유래비가 서 있다. 고려 말 두꺼비(蟾)가 때를 지어 왜구 침략을 막아낸 나루(津)터가 골자이다. 강 건너 하동 쪽은 옛날 '두저진(豆泊津)'이라 불렀다. 두꺼비와 통하는 말이다. 지리산의 본디 이름이 두류산인 것처럼 섭진도 비슷한 어원을 엿볼 수 있다. 결국 '두류(頭流)' 즉 '큰' 산과 강의 뜻이 한자를 달리하며 현재 이른 것이다.



함강에서 본 섭진강 순자 구간 백호일대

순창에서 곡성에 이르는 구간은 '순자강'이라 칭한다. 곡성군 임편과 남원시 대강면 사이를 굽이도는 곳은 20여만 평에 달하는 큰 모래섬이 있었다. 1980년대 중반까지 높은등임영사의 외딴섬 주위로 백사장과 함께 뽕나무, 포플러, 버드나무가 무성하여 '마장터' 또는 '버드나무'라 칭했다. 고려사지리지에 나온 '대내오도(大乃島)'로 추정된 이 하중도(河中島)에 금호타이어 곡성공장(서부리145번지)이 들어서 있다.

옥과천과 만나는 함강에서 제물리로 이어지는 섭진강 구간은 임백호 의가동네, 월파 유령로 의마초, 가네노 잠사가 설치된 종방, 함허정과 군지촌정사, 청계 양대박이 설치한 살뿌리보 등의 의미심장한 강변문화가 분포하고 있다.

2003년 '백호 임제(林梯·1549~1587)의 생애와 문화세계'라는 주제로 열린 나주시 주최 세미나 자료를 살핀다. 서울대 이종목 교수는 "청계의 아들 양명구가 지은 제호(齋號)의 팔경 중 하나로 '백포명사(白浦明沙)'를 꼽았다. 바로 '백호(白湖)'를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임편 송전리 내동마을 917번지 남원 윤남호 집터가 백호의 의가이고, 889번지 청룡동에는 높이 20m 둘레 6.1m 크기의 회화나무와 동네 앞 동각에는 이팝나무 숲도 장관이다.

임제의 호는 나주 회진 영산강에서 탄 '풍강(楓江)'도 있다. 금호는 섭진강 백호 근처에 공장을 지었다. 영산강과 섭진강 사람들이 어우러진 모습이다. 섭진강 사람들은 '젠피'라는 초과와 향료를 김치와 매운탕에 곁들인다. 영산강 주민들은 흥어에 익숙하다. 흥어를 젠피에 찍어 먹어보자. /김경수·사형토문화진흥원장

■ 전라도 방언 (32)

“할머니, 이거 아입니까?”

전남의 남부지역 방언에서는 '1'모음과 또는 반모음 [j] (ㅈ·ㅊ) 사이에 'ㄴ'음이 탈락해 버린 운현상이 흔하다. 예컨대 '어머니(어머니), 할머니(할머니), 저역(저녁), 아입게(아이라), 아입니(아니라), 아입니(아니라), 아입니(아니라)' 등과 같은 현상을 말한다. 이것은 '1'가 전설 고모음인 특성 때문에 ㄴ, [n]의 조음위치와 잇몸에서 센입천장 쪽으

로 끌려 경구개음으로 바뀌었다가 마침내 약화, 탈락해 버린 발음 편의에 따른 원인이다. 진도에서 방언조사를 하다보면 이런 예를 수없이 들게 된다. "아주머니, 어디로 가소? 기양 가부렀다우. 쪽간 갔다가는 머이라고 하는고이. 아이(아니) 가마이(가만히) 생각해 보이(보니), 산을 넘어 가입게(가니까), 빨리 오이라(오너라). 아무개 아입니(아닙니까?)". 간다 하드이(하더니), 그란 것이 아이라(아니라) 등. 또 낱말의 음절이 줄어져 버린 예도 방언에는 허다하다. "압니(어머니), 멧(무엇), 담(다음), 싹(싸움), 맘(마음), 함(하품), 맘(미음), 아계(이렇게), 그계(그렇게), 저계(저렇게), 그란도(그러잖아도), 뻗기다(빼앗기다), 끄계(그렇게)←그러니까) 말이여" 등. /이돈주·전남대 명예교수



■ 남도 야생화

-배풍등

가지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 식물로 산야나 인가 부근에서 자라며, 반경굴성으로 키는 3m 정도다. 북부지방을 제외한 전국에 걸쳐 분포하고 개화 시기는 8~9월이다. 가을에 영두처럼 생긴 빨간 열매가 열리는데 이것을 약재로 쓰거나 꽃꽂이용으로 많이 활용한다. /리규재·생태사자

지붕·옥상슬라브 우레탄폼 방수전문!
지붕 방수도 되고 단열도 되는 최첨단 신소재 겨울철 보온, 난방비 절감! 지금 시공하십시오!!

- 비가 새서 걱정하십니까?
- 겨울에 더워서 자를 났습니까?
- 겨울에 출근하십니까?
- 외관상 흉하십니까?
- 소음이 심하십니까?

한번 시공으로 건물 수명을 늘기 위한 영구 방수 단열 방비 50% 절감 효과

■ 외장: 기와지붕, 스페이트지붕, 합성지붕, 슬라브 옥상, 아파트 옥상, 경정지붕, 동향천고 등
 ■ 내장: 콘크리트, 석재, 방수천고, 저온천고, 해동균 건물벽, 지열을 살린 난방터미널 가능

※대리점 및 취급점 모집

(주)태양주택개발 | TEL (062) 262-0606 / 262-0450

노동부지정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현대직업전문학교
 [최고 교수진, 알찬 교육, 최상의 시설]

유료 과정	교육 내용	개강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실기	엑셀, 엑세스, 파워포인트	1차 8월 10일 : 오전/오후/오전/오후/오후 2차 8월 22일 : 오전/오후/오전/오후
재직자과정	교육 내용	개강
공인중개사	민법, 부동산학개론 1차 중심반	7월 22일 주말반
주택관리사	회계, 실무, 법규	8월 5일 주말반
정보화기초-1	윈도우, 인터넷, 문서편집활용	8월 개강
정보화기초-2	엑셀, 파워포인트, 컴퓨터활용	8월 개강
사무자동화	문서편집활용, 엑셀, 파워포인트, 컴퓨터활용	상당후결정

■ 기타사항
 • 고용보험가입 직장인, 각 과정별 25명 (선착순 정원제 모집)
 • 수료 후 100~80% 환급
 • 수강절차: 훈련 상담 ▶ 훈련수강신청서작성 ▶ 훈련기관에 제출 ▶ 수강

■ 문의처: 02-258-9119, 11, 117, 222, 555, 385, 777
 ■ 전산고교 앞: 3, 11, 27, 38, 55, 111, 118
 ■ 예설의가야로: 2, 6, 11, 25, 28, 30, 118, 222, 518, 666

현대직업전문학교
 위치: 전남여고건너편 (김재규경찰학원 1차)
 ☎ 224-4560, 236-2467

공무원 전문강좌
공무원 수시접수증

- 첫진도 시작반(이론반) 8월 1일 (광주유일 B반) **개강**
- 문제풀이 8월 1일(서울직 선관위 대비) **매월**
- 경직직 이벤트 무료교재(138000), 10월 1일 시험대비 문제풀이 무료) **1일**

무등고시학원 동부경찰서 222-4560

꼭내영고시학원
 “교원임용 강좌에도 질적 차이가 있습니다.”

초등교사, 중등교사, 보전교사, 유치원교사, 전문상담교사, 영양교사 임용시험을 구분하고 다양한 학생들의 학습욕구를 해결하려면 우선 다양하고 심도있는 학습자료와 그것을 실용할 수 있는 시스템 및 학습교재부터 개인 역량이 갖추어져야 하고, 비로 우의 최고 강사진이 선공과목별로 담당해야 합니다. 꼭내영 교육학의 교수진은 학부, 이공계 출신이 아닌 수년간 수많은 합격자들을 배출한 높은 합격률로써 입증된 최고 강사진입니다. 그러므로, 합격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꼭내, 교원임용시험은 교수진이 최고야 돼”

문제풀이반 개강 9월 2일 (현재 예약접수중)

▶ 교육학/학내영 선생	▶ 국어/회병해 교수	▶ 국어교육론/미운용 교수	▶ 영어/송옥 교수
▶ 수학/임대성 교수	▶ 과학교육론/정영민 교수	▶ 물리/장영민 교수	▶ 화학/이정철 교수
▶ 생물/김지옥 교수	▶ 지구과학/박명순 교수	▶ 사회교육론/김형수 교수	▶ 일반사회/김영수 교수
▶ 체육내용학/김용호 교수	▶ 체육교육론/조남용 교수	▶ 미술/김성희 교수	▶ 음악/박성진 교수
▶ 유아교육과정/임미선 선생	▶ 초등교육과정/위재현 선생	전국 최강의 강사진만을 모았습니다.	

수강문의: 062-529-0090 전남대 정문앞(신안사거리) http://www.naeyoung.com

hanbitgosi.co.kr

10월 1일 서울시 9월 23일 9급사무직 9월 24일 선관위 시험대비
7급 문제풀이반/이론반 9월 1일 마당앞벽 야외강사

전남 2007년 2007년 9월 25일 / 2007년 9월 25일
 합격대비 '양승훈' 선생 9월 25일 / 2007년 9월 25일

한빛공무원학원
 북구청 건너편 전남대 후문앞 ☎ 234-0234